

어르신네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오래 격조하였습니다 언짢게 여기지 마시고 양해해 주십시오

예년과 같이 또 겨울이 왔습니다 때가 때인 만큼 어르신네 두루 안녕하십니까 궁금합니다 저는 무사히 지내고 있습니다 안심하여 주십시오

이미 들으셨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간 저는 가정에 파란이 있었습니다

과도기에 태어나서 예술을 위해서 살려고 했으나 시어머니 남편의 몰이해 때문에 당분간 별거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다 저의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널리 헤아려 주십시오 신문에서 보셨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제전에 입선했습니다

그것을 출품하기 위해서 지난달 도쿄에 왔사오며 내년 4 , 5월 경까지 있고 싶습니다

제전은 도쿄는 끝났고 지금은 교토에서 열리고 있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부디 보고 비평을 해 주신다면 광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더구나 염치없는 청이어서 죄송합니다만 댁에서 사주하시면 행복하겠습니다

가격은 삼백 원이 되어 있지만 이백오십 원쯤에도 괜찮습니다

그 정원은 파리 체재 중에 그런 것이어서 역사적 영향을 받은 , 자신 있는 회심작입니다

참으로 뻔뻔스러운 부탁입니다만 만약 어르신 댁이 안 되면 , 따로 사주실 분을 소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그것을 팔 수 있다면 연구비로 쓰려고 합니다

교토 시장님으로부터 보내온 초대권과 깃다권을 보내드리니 부디 유익하게 써주십시오

머지않아 돌아갈 때에는 꼭 찾아뵙고 싶습니다

여러 드릴 말씀은 그 기회로 미루고 이만 실례합니다

아베 마쓰이에 선생님에게도 여러 가지 신세를 저서 자주 만나 뵙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안부 전해 달라십니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때가 때인 만큼 옥채保重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내 모든 분들께 안부 전해 주십시오

11월 29일 나혜석
야나기하라 어르신께